

멈춰선 취업시계

“1년 넘게 준비했는데”... 채용·자격증시험 줄줄이 연기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문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하수만’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노모(31)씨는 “9급 공무원시험을 1년 준비중인데 필기 시험이 갑자기 연기됐다. 시험 일정에 맞춰 스케줄을 세웠는데 헛수고한 거죠. 추후 일정도 안잡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시계가 멈춰섰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 각종 자격증·대기업들이 채용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수험생들로 뻘뻘한 학원을 다니는 동안 감염을 걱정하면서도 미뤄진 채용 시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는 답답함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일정 확정안돼 ‘속타고’=우선, 올 상반기 예정된 각종 자격증 시험 일정 대부분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치러질 계획이던 ‘제 4차 기능사’ 시험과 ‘제 1차 기사’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계차(134명), 한식조리(82명), 양식·중식·일식조리(25명) 등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수험생 269명은 허탈해 하고 있다. 정기 기사시험 응시자 1만 8084명도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미뤄지면서 자칫 원하는 기업 채용 일정에 맞추지 못할 지 애를 태우고 있다.

그나마 시험 일정조차 확정 안된 상태라 수험 준비생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병원 상반기 채용과 내일아트자격증 등 따 여름철 취업 성수기에 취업을 준비했던 취준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년간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했던 홍모(여·25)씨는 “빨리 자격증을 따 미용실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시험조차 못 보게 되고 언제 볼 지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대수 본부장은 “시험 시행 연기에 따른 세부 일정 및 기타 안내사항은 추후 Q-NET 공지사항 및 접수자 개인별 SMS를 통해 공지 예정”이라며 “취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인 만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시험 미뤄져 ‘불안하고’=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채용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 9급 공개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서해지방해경청이 애초 4월 11일 치르기로 했던 175명을 뽑는 해경 채용 필기시험도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도 지난해(3월 11일)에 공고를 냈던 채용 일정을 여태껏 확정하지 못했고 한국도로공사도 이달 예정됐던 채용을 잠정 연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160명 채용 일정을 무기한 늦추고 코레일도 오는 21일 치를 예정이던 필기시험을 다음달 25일로 늦추면서 시험 일정에 맞춰 준비해온 4만3200여명의 대상자들을 허탈하게 했다.

현대차도 신입사원들의 면접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에서도 불확실성을 엿볼 수 있다.

설문에 응한 126개 기업들 중 27.8%가

기약없는 자격증 시험
속타고
밀폐 강의실 감염 될까
두렵고
백수생활 더 해야 하나
답답하고

올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32.5%나 됐다.

토익, 텡스 등 여학시험과 가맹거래사,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모든 자격검정 시험도 중단된 상태로 향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취업에 성공해 직장생활을 꿈꾸던 준비생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오는 14일 토목기사자격증을 준비하던 김모(32)씨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자격증만 따 바로 일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면서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쓰며 버텼는데 시험이 연기되면서 당장 생활비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험 앞왔는데 코로나19 감염될까 ‘두렵고’=취업준비생들은 자칫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의 경우 뻘뻘한 공간에서 강의가 이뤄지면서 준비생들은 자칫 밀집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실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도 어려운 만큼 강의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2년 넘게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모(29)씨는 “밀폐된 강의실에

취준생들 ‘3중고’



광주시 동구 동부경찰서 인근 학원가.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이 미뤄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서 여러 명이 모여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수업을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

이 끝날 때마다 손을 씻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잇단 충돌 승용차 두동강 20대 3명 사망·2명 중상

새벽,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연제지하차도 옆길에서 그랜저 차량이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5명 중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시청에서 침단 방향으로 가던 중 연제지하차도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5명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해당 회사 직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탑승자 5명에 대한 체열을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보내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형령’ 탐앤탐스 대표 점유 확정

회사돈을 형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형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7억원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차익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가짜뉴스 엄단·법정 출입 제한...광주 검찰·법원도 비상

마스크 매점매석 등 집중 수사 마스크 미착용 방청인 제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광주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퍼날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매점매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공개재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제지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막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 가짜뉴스·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에는 한때 ‘확진자가 대형마트 직원이다’, ‘순천 모병원에 확진자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날라지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의 대응단으로 승격,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 대응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범죄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검찰은 신고센터를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등 보건 관련 범죄와 확진자 신원 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일반 생필품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시기 등도 포함된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벌금형 집행유예에 구형과 사회봉사 대체 및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상공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에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현장 조사로 지역사회 내 방역·보건 유포 유통체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마스크 없으면 법정 출입 제지=광주지법은 12일 법정 출입문에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시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법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외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달라. 법원 직원 안내에 따라 출입해주시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내걸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재판의 원칙에도, 비말(飛沫) 감염을 막고 한

꺼번에 많은 방청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입한다. 통상 사건 관계인과 방청인들이 예정 시간보다 앞서 법정에서 재판물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 때문에 일부 법정에서는 한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재판 순서에 맞춰 법정에서 들어가려던 변호사가 제지를 당했다가 입장하는 경우도 빚어졌다. 반면, 일부 법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광주법원 (고법·지법·가정)은 오는 13일까지 3주간 동·하절기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술마시다 머리채 잡고 싸운 여성들

○...술을 마시던 중 자

꾸 눈을 마주치던 두 20대 여성이 결국 머리채를 부여잡고 싸움을 벌인 끝에 나란히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5)씨와 B(24)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 한 술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서로 계속 눈이 마주치자 A씨가 다가 “왜 쳐다보느냐”고 따져 묻은 것이 발단이 돼 머리채를 맞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할퀴고 주먹을 교환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두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추후 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8%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3~7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위탁(일자리) 무료 보금
-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지역특산물 구매 및 판매(단수 한자)
- 50세 이상 조합원들 헬스케어(아파트) 혜택(연간)
- 지방청·소상공인·경제활성화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공간·기대 등 고금리업 위기에 따른 연대 지원금·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위탁(일자리) 무료 보금
- 50세 이상 조합원들 헬스케어(아파트) 혜택(연간)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신용보증
--	--	--	--	--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신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침단지점 576-4150